

5年生以上 課題文⑥

발

나는 발이지요.
고린내가 풍기는 발이지요.
하루 종일 갑갑한 신발 속에서
무겁게 짓눌리며 일만 하는 발이지요.
때로는 바보처럼
우리끼리 밟고 밟히는 발이지요.

그러나 나는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비며 우리나라의
대동여지도를 그린
조선시대 김정호 선생의 발.

얼음판에서 날렵한 몸동작으로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 김연아 선수의 발.

오사카에서 자라 삼성의 축구선수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발.

그러나 나는
발톱이 상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모든 영광을 남에게 돌리고
어두컴컴한 뒷자리에서
말없이 살아가는
그런 발이지요.

足

わたしは足です。
いやなにおいがする足です。
一日じゅう、きゅうくつな靴くつの中で
押さえつけられながらひたすらはたら働く足です。
時にはバカみたいに
おたがいにふ踏んだりふ踏まれたりする足です。

だけど、わたしは
三千里、全国のいたる所を行きわたり
大東輿地図テドンヨを書き上げた
朝鮮時代の金正浩先生キムジョンホの足。

氷の上ですばや素早い動きで
素晴らしい演技えんぎを見せてくれるキムヨナ選手の足。

大阪で生まれサムソンのサッカー選手として
その名をとどろかせているチョンテセ選手の足。

だけど、わたしは
足の爪つめがいたんで傷きずついても
すべての栄光を人にゆずり
日の当たらない裏方うらかたで
何も言わずに生きて行く
そんな足です。